

어학연수 교환학생 수학보고서

1. 기본정보

학과		이름	조*호
파견국가	캐나다	파견도시	벤쿠버
파견대학	Langara College	파견기간	2017.08.30~2017.12.15
귀국여부	귀국		

2. 파견대학 및 수업 전반 사항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파견대학	Langara College는 스카이트레인 Langara station역과 도보로 5분 거리에 있습니다. 다운타운과는 스카이트레인으로 30분 정도 걸립니다. 학교는 매우 깔끔하고 시설이 좋습니다. 규모는 우리 학교 유니토피아+해맞이+잉빌+해오름 정도 규모로 매우 작습니다. 와 닿지는 않는 말이지만 Langara College는 캐나다 명문대 UBC로도 학생들이 많이 편입할 수 있는 벤쿠버 내에서 명문 College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.
수업	레벨테스트는 reading, writing, 그리고 speaking 정도로 봤던 거 같아요. 높은 레벨의 수업을 수강할수록 영어를 잘 하는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되니 최대한 신경써서 잘 보시길 바래요. 다만 leap 0~2는 액티비티 위주, leap3~4는 중간, leap5부터는 꽤 아카데믹한 수업이에요. 성적이 70% 이상 합격하면 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고, 90%가 넘으면 다다음 레벨로 올라갈 수 있어요. 우리 학교 규정 상 굳이 다음 레벨로 올라가지 않아도 어차피 학점은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 괜히 패스 못한다고 스트레스 받진 않으셨음 좋겠네요. 그래도 이왕 하는 거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. 똑같은 강의를 두 번 듣는 것도 재미없으니까요. 숙제의 양은 선생님이 따라 다릅니다. 제 경우엔 5보다 4를 들을 때 더 많았어요. 학생들은 대부분 중국, 베트남, 일본 친구들이에요. 가끔 브라질, 러시아, 사우디 학생들이 있어요. Leap4는 프레젠테이션이 2번 있었어요. 첫 번째는 2명에서 포스터를 만들어서 셰익스피어 소설의 스토리를 발표했고, 두 번째는 3~4명이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유명한 케네디언에 대한 주제로 발표하는 거였어요. Leap5는 프레젠테이션 1번과 에세이 제출이 있었어요. 발표는 3~4명이 포스터를 만들어 고대 문명에 대한 것으로 매우 딱딱한 주제였고, 에세이는 워드로 타이핑해서 제출했어요. 아,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리스닝, 리딩, 라이팅 시험 봤어요. 수업 시간에 다 친절히 알려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아요.

프로그램 운영	LEAP 프로그램이 국제학생들을 위한 거라 오리엔테이션 때 친절히 다 알려주고, A빌딩 1층에 있는 오피스 가시면 모르는 거 다 알려줘요. I-café는 그냥 간식거리 먹으면서 편하게 친구들 사귄 수 있는 곳이에요. 시간 없어도 들러서 먹을 거라도 챙겨서 나오세요. 개인적으로 I-sports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정보가 별로 없더라구요. 저는 I-explore를 통해 아쿠아리움을 반값으로 다녀오고 친구들도 사귀고 좋았어요. 그리고 홈스테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시면 친절히 상담해주고 도와줍니다. 그 사람들은 우리 편이에요. 영어 잘 못해도 천천히 이야기 다 들어줍니다.
------------	--

3. 생활전반

구분	결과보고(서술형)
날씨	8,9월에 무조건 많이 돌아다니세요. 학교에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10월 중순이 넘어가면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. 그리고 반팔 챙겨가세요. 누가 반팔 필요없다해서 몇 개 안 가져갔다가 더워서 개고생했어요. 번거롭더라도 겨울을 위해 패딩이나 야상 하나도 꼭 챙겨가시구요. 비가 정말 지겹게 오긴 합니다만, 하도 레인쿠버라는 애기를 많이 들고 갔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그냥 텅텅하더라구요. 우산 튼튼한 거 하나 챙겨가세요. 캐나다 사람들 비 와도 우산 안쓰고 다닌다는 거 부슬부슬 내리는 걸 말하는 거지, 애네도 퍼붓고 이러면 살려고 다 쓰고 다닙니다.
안전	한국만큼 안전한 거 같아요. 다운타운에 가면 마리화나 냄새 엄청나고 노숙자도 많긴 한데 안 건들면 안 해쳐요. 2018년부터 마리화나가 본격 합법화 된다고 하니까 냄새가 더 심해지긴 할 거 같네요. 저는 잘 못 느꼈지만 워터프론트 역 근처 위험하다니까 밤 늦게 안 다니시길 권유해드리구요. 사실 밤 늦게 다니면 어디든 위험하긴 해요. 메트로타운 역도 12시 넘어서 다니니까 꽤 으스스한 게 약쟁이들 꽤 있더라구요.
숙소	학교기숙사() 홈스테이 (o) 외부 숙소(o) 기타() 개인적으로 멀쩡한 홈스테이 찾기는 하늘에 별 따기인 거 같습니다.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홈스테이 로망은 정신건강을 위해 일찌감치 버리고 오시길 바랍니다. 혹시나 만약, Felix라는 홍콩인 홈스테이에 선택 되셨다면 가능한 한 빨리 홈스테이 오피스에 가서 바꾸시거나 룸렌트를 하시길 바래요. 이 집은 학교에서도 포기한 집이라 뭐 더 연결되진 않겠지만요. 빨래나 음식이나 난방이나 무슨 문제가 생기면 최대한 빠르게 집주인에게 이야기하세요. 한국인 특성상 그런 거 이야기하기 힘든 거 알지만 그래도 적지 않은 돈 내고 사는 데 꼭 부딪쳐야 합니다.

	<p>저는 두 달은 홈스테이에서 지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두 달 참고 룸렌트 구해서 나와서 따로 살았어요. 우벤유 사이트 들어가면 방 많이 올라와요. 물론 자주 찾아봐야돼요. 다운타운 근처는 비싸니까 되도록 피하시고 조이스나 29th 스테이션 근처로 찾아보세요.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싸서 한국인들 많이 몰려사는 지역이에요. 개인적으로 정말 괜찮은 홈스테이를 제외하고는 룸렌트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.</p>
식사	<p>홈스테이 집주인이 도시락 싸주기를 귀찮아하기도 했고 첫 세션은 오후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집에서 밥을 먹고 갔어요. 홍콩 할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고 나갔는데, 그냥 그럭저럭 먹을 만 했어요. 두 번째 세션을 들으면서는 룸렌트에 살았고, 아침 수업을 듣게 되어서 도시락을 싸갔어요. 학교 카페테리아는 비싸고 맛없어요. 그 트리플 오 인가하는 햄버거 가게는 매주 화요일에 오리지널 버거 할인하는 날이라 그거는 가끔 사먹었고, 차라리 스튜던 유니언 건물에 있는 스시집이 있는데 거기 가라아게 돈이 7.5불? 정도하고 괜찮아요. 직원분도 한국인이시더라구요.</p>
교통	<p>먼슬리패스가 93불? 좀 비싸긴 해도 제일 마음 편해요. 통학은 49번 버스를 타고 수업을 들으러 갈 땐 항상 버스가 꽉 차서 답답했는데, 이사하고나서 41번 버스 타고 스카이트레인 타니까 좀 괜찮았어요. 49번은 정말 오전수업이든 오후수업이든 항상 꽉 차요. 밴쿠버는 1존, 2존, 3존으로 나뉘어 있고 만약 1존 먼슬리패스를 샀다면 2존이나 3존 구역으로 넘어갔을 때 추가 요금이 붙어요. (주말과 평일 저녁6시반 이후로는 무료) 다운타운이나 학교나 대부분이 1존 안에 있기 때문에 별 일 아니라면 1존 끊고 다니시면 될 거 같아요. 아 그리고 먼슬리패스는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사용 가능한 거예요. 구입은 스카이트레인 역에서 기계를 이용해서 뽑으시면 되구요. 아마 그 전 달 21일? 즈음부터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. 현금으로 구매 시 20달러짜리 까지만 넣을 수 있으니 그 전에 미리 50달러 같은 거 깨고 가세요.</p>

4. 소요경비 (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)

단위 : 원

항목	비용	비고(간략한 비용내역 등)
항공료	1,050,000원	에어캐나다 벤쿠버 in 토론토 out (변경비 지불)
Fees	학교 등록금	등록금 이외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 없음
보험료	13만원	한화 해외장기체류보험
숙소	$830 \times 2 + 800 = 2460$ 불	홈스테이2달+룸렌트1달반
식비	1475불	4개월
교통비	93불*4	먼슬리패스
책값	없음	
통신비	$92000 + 50000 \times 3$	스마텔 첫 달 가입비+4GB요금제
기타2		
기타3		
합계		

5. 출국 전 준비사항

파견 전 미리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,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

6. 본인 소감 및 평가

4학년 2학기에 1년도 아닌 한 학기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것에 대해서 다들 만류하고 걱정했지만 다녀온 지금 후회는 없습니다. 사실 가기 전 정말 많이 고민했지만 이 좋은 경험을 늦게나마 해본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만족합니다. 우선 저는 떠나기 전, 함께 가는 학생들과 연락을 주고받아 현지에서도 같이 어울리며 지냈습니다. 덕분에 현지에 적응하기도 수월했고 힘들 때 서로 의지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

홍콩인 할머니와 둘이 지냈던 홈스테이는 정말 최악이었습니다. 2주에 한 번이라는 세탁 규정은 정말 끔찍했고, 이 점에 대해 학교에 얘기를 꺼냈다고 제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네요. 국제교육교류처에서는 최소 2달을 홈스테이에 지내야 한다는 규정은 다음 학생들을 위해 수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

밴쿠버는 한국과 비교해서 정말 심심한 동네입니다. 운동하고 싶으시면 교내에 있는 YMCA 건물에서 매달 53불에 헬스장, 수영장 이용 다 가능합니다. 1주일 무료체험도 있으니까 추천드려요. 저는 집 주변에 있던 킬러니 커뮤니티센터로 41불인가 주고 다녔어요. 캐나다는 워낙 운동이 일상화 되어있어서 각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운동시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. 축구 좋아하시면 우벤유에 보시면 한인축구팀들 많습니다. 볼링장은 마린드라이브-플레이저 스트리트에 있는 곳 가시면 한국과 비슷한 정도 가격으로 즐길 수 있어요.

개인적으로 4개월만에 영어에 귀와 입이 트였다고 말할 수 없고 기대도 안하고 갔었지만 그래도 자신감이 조금 붙긴 한 거 같아요. 정말 살면서 가장 많이 입에 영어를 달고 살았던 4개월이었어요. 최대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려고 노력했습니다.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라면, 수업을 원어민이 아닌 친구들과 듣다 보니 말을 하면서 내가 쓰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를 알 수가 없어서 실력 향상이 좀 더디게 된 거 같아요. meet up 이라는 어플로 스피킹 모임도 나가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좋았어요. 집에 있지만 마세요. 어디든 많이 돌아다니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같아요.

수영복 챙겨가세요. 날씨 좋을 때, Lynn Canyon 계곡이나 잉글리시베이 가서 수영 못해 본 게 한이 되네요. 없으면 UBC 근처에 누드비치라도 가세요. 세면용품은 한 3일치 쓸 수 있는 샘플 다이소에서 하나 사 가시고 나머지는 Shoppers나 London drugs가서 사세요. 안 비싸요. 거실화도 잊지 말고 사가세요.

맛집은 Craft beer market 나초랑 푸틴 맛있고, 리치몬드 피셔맨즈와프 근처 피쉬앤칩스 맛있어요. 라멘은 브로드웨이시티홀에 있는 Santouka가 제일 맛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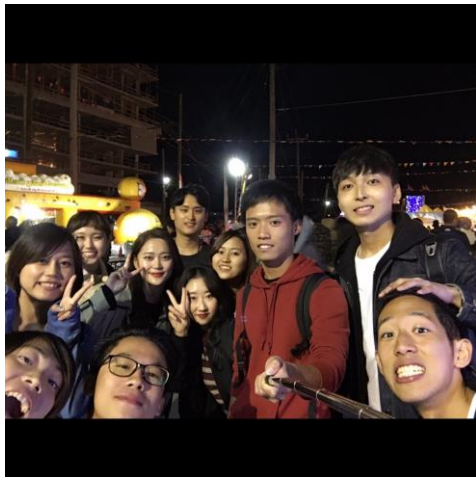
7. 사진보고서(6장 이상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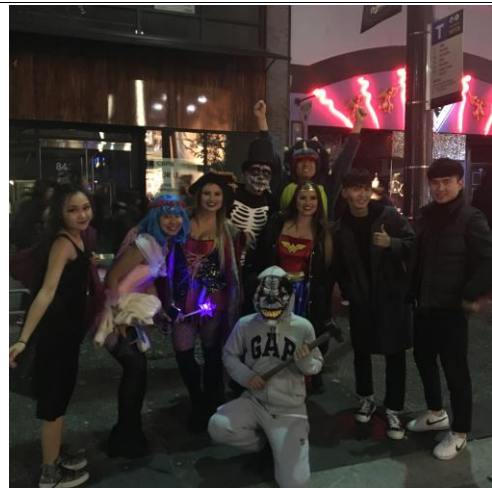
I - expl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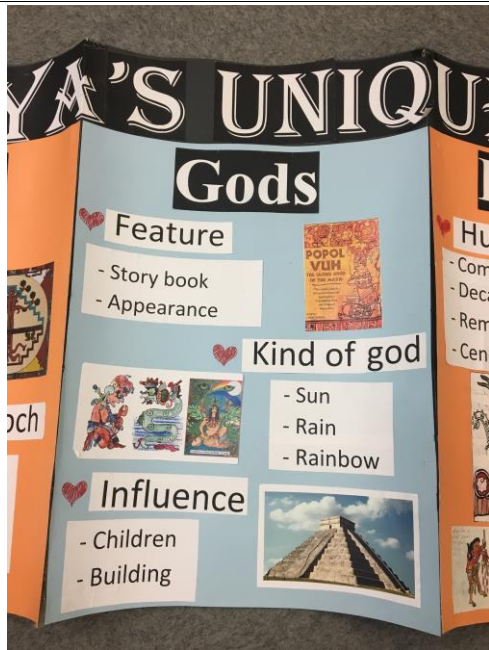
스탠리파크



리치몬드 나이트 마켓



할로윈데이



프레젠테이션 포스터



캐나다 동부여행